

화해의 사람들 (PEOPLE OF RECONCILIATION).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80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지난 10월 기도편지에서 기도부탁을 드렸던 뮌칸요 신학교(Mukhanyo Theological College)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신학교는 지역에 많은 캠퍼스를 두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원도 이 대학에 소속된 하나의 캠퍼스로 협력 사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었는데, 이 협력이 잘 이루어 졌습니다.

2019년 부터는 제가 사역하는 목회자 훈련원에서 두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훈련으로, 이 훈련은 이미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지역 흑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두번째는 앞서 말한 뮌칸요 신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정식 신학교 분교사역으로 이 과정은 남아공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졸업장이 나오는 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학비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모임으로 2018년 사역이 마무리게 됩니다. 11월 26일 부터 한주간 침례교단(FMB) 파송으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전략 회의가 이곳 케이프 타운 에서 있습니다. 대략 80명이 참가하는 이 회의에 저는 준비 위원으로 아내는 식사준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남아공 안에 있는 무슬림에 대한 리서치와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프리카 이슬람에 대한 그림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남아공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무슬림 사역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참석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2018년을 마무리 하면서 매년 연말 어린이교회의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현지 동역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눕니다. 매년 이 사역에 동역해 주심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올해에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실 여러분들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1. 2018년 목회자 훈련원과 어린이 사역을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 11월 26일부터 있는 침례교단 이슬람 사역 선교사들을 위한 전략회의를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마칠때 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3. 어린이교회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한 선물이 잘 준비 되도록..(10만원 12명 헌신자를 위해..)
4. 윤성이가(고1)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꿈을 품고 나아가도록...
5. 수현이(초1)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학교가 즐겁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생활 하도록...
6. 연말에 잦은 사건 사고로 부터 저희 가족을 보호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